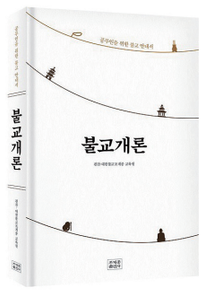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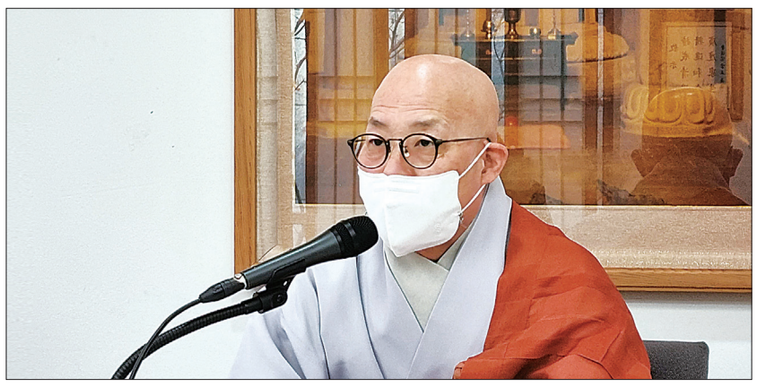
조계종, 첫 종단본 '불교개론' 출간

교육원 3월 15일 기자회견

학인 눈높이에 맞춰 기술해
승가대학 등 전문가들 집필
공동체 · 보살도 강조 '눈길'
올 1학기 부터 교재로 활용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3월 15일 열린 '불교개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발간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중에 발간된 불교 개론서는 수십 종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교학 중심으로 어렵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불교 초심자에게는 개론서가 더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조계종이 불교 사문으로 입문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개론서를 새롭게 발간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개론〉 발간 의미에 대해 밝혔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와 사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포교 현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럴수록 빠르게 불교를 이해 · 습득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학인들의 눈높이에서 기술된 개론서가 필요했다"고 새로운 개론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교육원이 출간한 〈불교 개론〉은 첫 종단본 불교 개론서"라며 "이 시대에 맞는 생각과 사상, 언어적 표현과 이해 등에 부합되도록 편집했다. 개론이 승가교육 · 불교 공부에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학인과 초심자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쉬운 불교 개론서의 요구는 교육 일선 현장에서부터 있었다. 제8대 교육원 출범 직후 승가교육 발전 방안 수렴을 위한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교육교역자 스님들은 "새로운 〈불교개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원은 2021년 3월 출 · 재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에는 집필진을 선정해 본격적인 편찬에 들어갔다. 이후 교육원은 4차례 걸친 편찬추진위원회 회의와 검증 · 검수 과정을 통해 개론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8일 〈불교개론〉을 발간했다.

자체적인 편찬 원칙도 세웠다. 이에 대해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은 "중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념과 용어들을 최대한 풀이해서 한자가 아닌 한글로 기술했다. 이는 한글세대를 위한 배려"라며 "사찰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의 출 · 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구성했고, 연령대도 일선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40~50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용은 경 · 율 · 론, 어록 등의 출처를 밝혔다. 관련 논문, 저서 등도 함께 게재해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학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원이 밝힌 것처럼 조계종단본 〈불교개론〉은 일반 개론서와는 차이가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불교개론〉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 시작해 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살핀 뒤, 불교 사상 · 역사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승가공동체과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승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 챕터에 걸쳐 기술한 것도 특징이다.

고명석 불학연구원 팀장은 "기존 개론서는 계율과 공동체성을 잘 다루지 않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원의 〈불교개론〉은 '승가공동체와 계율'을 한 장으로 다루며 계율과 승가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며 "이는 학인 스님과 불교 초심자들을 위한 배려이며, 여기에는 미래사회 공동체의 지향점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은 새로 편찬된 〈불교개론〉을 올해 1학기부터 학인스님들의 교재로 활용된다. 향후 교육원은 대승불교 전반을 다루는 〈대승불교 개론〉, 계율 개론서인 〈계율과 사회윤리〉 등도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제8대 교육원은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해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했고 이에 맞춰 〈불교개론〉 편찬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종단본 〈불교개론〉이 승가교육기관에 널리 활용돼 학인들이 불교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 승가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문화분과 신설 추진

종헌특위, 3월16일 개정안 심의
유언장 제출도 비구(니)계부터
중앙종회법 · 승려법 등 5건 성안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에 불교문화와 문화재, 불교예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 ·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이하 종헌특위)는 3월 16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제224회 임시회에 발의할 중앙종회법 · 승려법 · 호계원법 · 사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문화분과 신설은 현행법상 사회분과위원회가 사회 · 문화분야를 총괄하고 있어 총무원 사회부와 문화부 및 산하기관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범위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됐다.

이에 종헌특위는 문화분과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무원 문화부 소관에 관한 사항,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성보(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사회분과에 포함됐던 방송언론에 관한 사항과 불교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소관으로, 문화분과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총무분과와 재정분과가 중복으로 관장하던 직영사찰 관리 및 감사업무도 총무분과로 일원화했으며, 11월 정기회 소집기일을 현행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변경키로 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형행법상 사미(니)계 수계 시 제출토록 정해진 유언장을 비구(니)계 수계 시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은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사미(니)계 수계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따른 개개인의 부담감이 출가에 대한 회의적인 고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구본사 혹은 공찰인 말사가 지역 내 도심포교를 위한 직영포교당을 건립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사찰법 개정안은 제4조 사찰의 구분에 직영포교당 항목을 신설하고,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본종 승려를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으로 임명해 관할 직영포교당 관리와 운영을 위임관리할 수 있다 △관리인 임명시 1개월 내 총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직영포교당 창건 시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의 세부규정을 담았다.

이날 종헌특위는 제6차 회의서 성안한 중앙종회법 · 승려법 · 호계원법 · 사찰법 ·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3월 28일 개원할 제224회 임시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발등의 불' 출가자 급감, 실효적 대안 나올까

출가장려특위, 3월 15일 5차 회의서

출가자 급감의 원인 진단
구조적 개선 필요성 공감

출가자 연 100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출가자 수가 100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가자 급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출가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중앙종회 특별위원회가 출가자 감소의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범종단 차원의 TF팀 구성 및 출가장려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수행자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이하 출가특위)는 3월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출가자 급감의 원인 진단을 토대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출가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 3월 종회에서 특위 활동보고와 함께 총무원법 제12조 총무부 업무에 '출가장려 및 출가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현행제도상 출가자에 대한 업무가 교육원 소관 승가교육 구조에 한정될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출가장려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3월 종회 입법발의를 목표로 출가장려에 관한 특별법 제출을 위한 긴급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출가자 감소의 원인이 총체적인 데다가 현행법상 이미 출가 장려와 관련한 법안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특위는 총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종법령 제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 이를 위한 범종단 차원의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사찰 승가대학과 종립대학교의 병합 및 예비출가자(행자)교육을 포함하는 승려 교육제도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연령 · 계층별 출가자 장려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선결적으로 총무원법 개정 촉구를 통해 소관부서 부재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 스님들은 이날 종립대학 학생을 출가예비자로 포함시키는 안, 청소년 단기출가 범위를 확대 및 일부개편하는 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 끝에, 위원장 정범 스님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출가자수 급감은 종단의 오랜 숙제인 만큼, 이번 종회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입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송지희 기자

지역별 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추진

종교편향특위, 제8차 회의서

조계종이 지역 교구본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종교차별신고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돼 온 종교편향 ·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올해 종교평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상시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확대 등과 연계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3월 1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사회부가 보고한 종교편향 대응사업의 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부는 올해 종교편향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제도 및 대응시스템 강화 및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을 개진할 방침이다.

여러 방안 가운데 특히 지역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추진의 건과 관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종교차별 사업 및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교구별 협력으로 지역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포교 · 신도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역할 부여를 골자로 한다.

종교편향특위는 이날 4월 7일 중앙종회의원 연수로 진행될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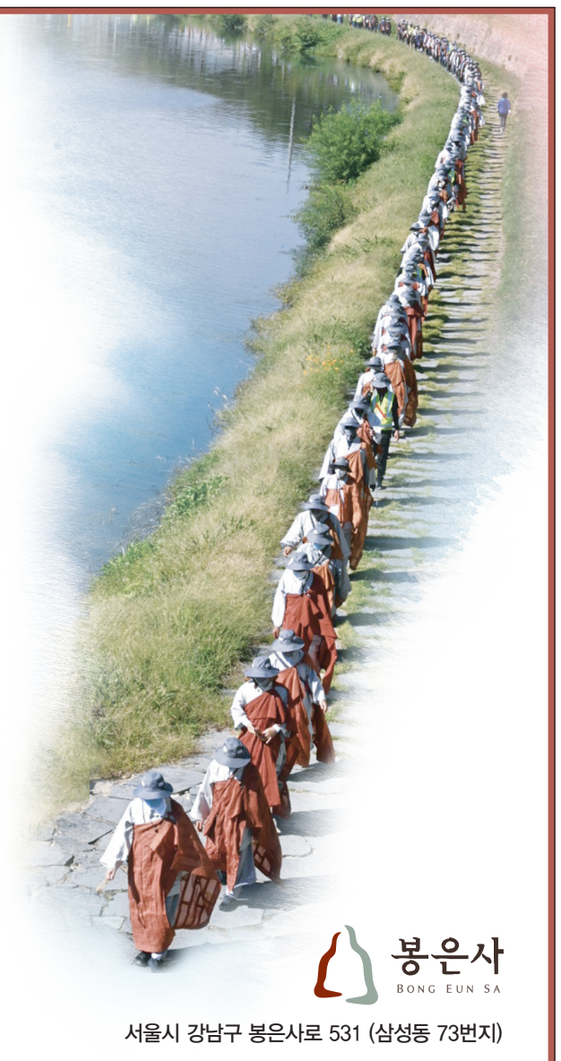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